

예비 보육교사의 전공 자율동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Major-associated Autonomous Club Activities

오새니¹ 양지애²

Saenee Oh¹ Jiae Yang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major-associated autonomous club activ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31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Child Care at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who participated in a major-associated autonomous music club activity.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the best metho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 while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Result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music club activities wa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enjoying abundant college life," "growing as a competent childcare teacher," and "being a responsible member of a communi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how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major-associated autonomous clubs has a positive impact on desirable changes in college life and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and on the growth of futur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s.

¹ 제1저자

유한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jiae@kongju.ac.kr)

key 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ajor-associated club activities, autonomous club activities

I. 서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을 접하며, 심리적 부담과 혼란을 경험한다(최용혁, 2017; Pritchard & Willson, 2005).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공부하며 지내던 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워 학점을 관리하고, 가족과 또래 위주의 대인관계를 넘어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관계 구축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부담감은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화선, 조경화, 노인숙, 2019). 고등학교 3년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입학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자퇴하는 대학생들이 한 해 7만 명에 달하는 것(매일경제, 2021.9.17)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대학생활에 적응한 이후에도 대학생들은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진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취업은 잘 될지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듯 매년 졸업 유예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학문적인 성과 다음의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된다(최용혁, 2017). 그러나 최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안, 취업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며 대학 내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수요가 증가(문화일보, 2016.4.5)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는 더 이상 부가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러한 대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의 정서·심리적인 변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박주은, 양윤정, 장은주, 조은상, 2020; 이경현, 김명아, 2018),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박신영, 2018; 최재섭, 권상현, 황재욱, 2017), 대학생활 정보제공 프로그램(박은혁, 2013; 이연정, 2021)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동아리 활동 또한 대학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현실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길러주어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김근국, 김만수, 김범준, 2015; 최용혁, 2017)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동아리는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는 모듬이다(윤영미, 2013; 황성호, 이동희, 2020). 동아리 활동은 일상생활 및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최현욱, 이민석, 2019), 다른 학과 전공자와의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며 사회관계의 폭을 넓히고 교양을 쌓아 장래 사회인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견고히 하기도 한다(정문미, 원영신, 2013).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활동 경험의 기회를 얻어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손유진, 2003). 이렇듯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및 인간관계 구축을 통한 부정적 감정 해소뿐 아니라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기존의 동아리 이외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달라진 관심 분야나 진로를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기도 한다. 예술과 공연기획이 융합된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 관련 동아리, 채용평가 지표를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면접 대비 동아리(백정민, 구남호, 2017; 정석민, 2002; 최용혁, 2017), 자산관리 및 주식투자 동아리(매일경제, 2021.3.1),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업, 금융, 학습 활동 및 산업체와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등을 하는 메타버스 동아리(뉴스1, 2021.10.2) 등이 등장하여 대학 동아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아가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학생활에 적응해나가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나간다. 특히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낀다.

특히 같은 전공의 같은 진로를 계획 중인 학생들이 모여 구성한 전공 동아리는 공통된 관심사를 토대로 전공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교과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직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로 전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전공학과 적응 및 진로의식 형성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김문주, 2011). 전공동아리의 교육적 효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연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공 동아리 활동에 참여로 인하여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효과를 보고하였고(송민선, 이인숙, 2020; 차남현, 김윤경, 2014), 피부미용 전공 대학생의 전공 동아리 참여 연구에서는 전공 동아리 활동이 전공 및 학과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자기개발, 전공심화교육, 취업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김문주, 2011).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분야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몇몇 이루어졌다. 음악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비 유아교사의 음악 관련 교수방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 및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윤수인, 박윤, 2017; 이옥주, 윤지영, 2017), R-러닝 동아리 활동이 예비 유아교사의 R-러닝 지식과 조작기술 및 유아교육현장의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 R-러닝 전문성을 강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이경옥, 이상희, 엄소명, 정다희, 2012; 조경미, 이연승, 2014; 한선아, 강민정, 유희정, 2013). 또한 김세루(2021)는 그림책 연구 동아리 활동이 감정을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과 문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효능감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 준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확신과 적응, 수행 정도를 진로 성숙도라 하였다. 진로 성숙도가 높으면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신의 진로 계획과 선택을 조정, 통합하는 능력, 대학생 활과 학업 적응력,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 능력이 높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이지선, 2010) 대학 시기에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강화,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승원(2018)은 예비 유아교사들이 전공에 흥미와 만족을 느낄수록 진로에 몰입하고,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자신감과 동기 형성을 통해 진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개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공 동아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공 자율동아리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만큼 관련된 활동을 스스로 찾아 계획, 실행, 평가하며 이를 통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의식 고취하고, 보육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비 보육교사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 동아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양적 분석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보고되어 대학생들 중 전공 동아리 활동 참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공 동아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전문가 특강, 피드백, 유아교육 현장 체험 등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공 동아리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동아리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색이자 장점이 활동 자체가 대학생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활동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 대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정문미, 원영신, 2013)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이전의 전공 동아리 관련 연구들은 대학 동아리의 특징 중 하나인 동아리 회원의 자발적 동아리 참여 경험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 참여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 보육교사들이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대학생활과 학과 적응 및 보육교사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 보육교사의 전공 자유통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A대학 아동보육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전공 자유통아리인 음악통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통아리 회원 31명이다. A대학에서의 전공 연계 통아리는 정규통아리와 자유통아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통아리는 대학 내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학교로부터 통아리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지도교수의 정규적인 지도를 받는다. 자유통아리는 학과의 승인하에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학교 학사일정 및 전공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되지만,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된 통아리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자유통아리로 운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통아리는 A대학 아동보육학과의 자유통아리로, 통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3월 신입 통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음악통아리 활동은 통아리 회원 중 2학년 임원 중심으로 계획·운영되며, 정기적인 활동은 신입 통아리 회원 모집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시작되어 주 1~2회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통아리 회원의 구성은 2학년 13명, 1학년 18명으로 남학생 2명, 여학생 29명이다.

연구자 중 1인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통아리의 지도교수 A이다. 연구자A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봉사활동 기관 섭외 및 연습 장소 섭외 등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아리 회원들이 자유통아리로 통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자A는 1년여의 통아리 활동을 지켜보면서 통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예비 보육교사들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평소 대학 내 전공 자유통아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대학의 전공 자유통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을 예정인 또다른 연구자B와 본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B는 연구자A가 수집한 자료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연구자A와 함께 예비 보육교사들의 전공 자유통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를 추출해 내는 역할을 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음악통아리 회원을 모집한 2020년 3월 2주 차부터 1년의 통아리 활동이

마무리된 2021년 2월 3주 차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동아리 지원서류를 작성한 음악동아리 회원 33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저장 및 보관, 연구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동아리 회원 31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지원서류, 동아리 활동일지,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및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동아리 지원서류는 동아리 회원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동아리 지원 동기 및 포부, 기대 활동 등이 자유롭게 기술되어 있다. 동아리 지원서류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담에는 연구참여자 전원이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회씩 참여하였다.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전화 통화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1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내용은 구체적인 동아리 지원 동기, 음악 및 악기 연주에 대한 사전경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이다.

동아리 활동일지는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 2학년 동아리 임원들이 작성한 일지이다. 동아리 활동일지에는 주차별 동아리 활동 내용 및 동아리 활동 참여 회원 명단, 어린이집 악기 연주 봉사활동 준비, 어린이집 봉사활동 시 역할 분담, 진행자 대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리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개별 및 집단 면담은 학기를 시작하는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와 학기를 마무리하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례 실시되었으며, 개별 및 집단 면담은 연구참여자 중 동아리 임원 6명과 어린이집 봉사에 참여한 일반회원 15명으로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면담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30-6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내용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생각, 어려움 등이다.

설문자료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동아리 회원들의 개념적 메타포 설문으로, 동아리에 대한 메타포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동아리는 ___이다. 왜냐하면 ___이기 때문이다.)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메타포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담에는 연구참여자 전원이 2020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1회씩 전화 통화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질문내용은 동아리에 대한 메타포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경험 등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추가 질문을 하였다. 모든 면담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 후, 전사하였다. 이외에 활동 하였던 활동사진, 휴대폰의 단체 활동방 메시지, 메일, 연구진행 과정을 기록한 연구자의 현장노트도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공 자율동아리인 음악동아리 활동 경험이 예비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의 과정인 준비, 조직화, 분석과 결과 보고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준비 단계는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 단위를 결정하고 데이터 전반을 이해하는 단계로, 동아리 지원서류, 활동일지,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수집하고, 녹음파일은 모두 녹취하였다. 이후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동아리 지원서류, 동아리 활동일지, 설문자료, 녹취록과 녹음 내용을 여러 차례 숙독하며 예비 보육교사들의 전공 자율동아리 활

동 참여 경험 전반에 대해 이해하였다. 두 번째, 조직화 단계는 개방코딩, 범주 생성 및 추상화 작업단계로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 연구목적에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텍스트로부터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보들은 해당 범주에 따라 하위 범주(sub-category), 일반 범주(generic category), 주요 범주(main category)로 정리하여 조직화하였다. 세 번째, 분석과 결과 보고 단계는 전공 자율동아리인 음악동아리 활동 경험 관련 자료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정보들을 범주별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단계이다.

한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로 연구자 간 검토 및 연구참여자인 동아리 회원들의 검증을 받았다. 또한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과정으로 유아교육 전문가이자 질적연구 경험자인 2인에 의해 연구방법, 해석 및 분석 등에 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표 1. 자료분석을 통해 범주화된 내용

주요범주	일반범주	하위범주
풍요로운 대학생활 누리기	든든한 인간관계 형성하기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공감대 형성 및 심리적 지지
	다양한 경험: 도전과 추억 만들기	악기 연주 방법 학습 동아리 활동의 추억
	내 삶의 오아시스 발견하기	휴식과 치유 즐거움과 만족감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기	유아교육현장 경험하기	유아의 발달 및 특성 파악 유아의 음악적 선호도 파악
	보육교사로서 나만의 강점 만들기	새로운 악기 연주법 습득 수업 관련 기술 획득
	보육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관련 자격증 취득 학과에 대한 애정과 진로에 대한 확신 증가 적성과 자질 점검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 되기	동아리에서 나의 역할 성실하게 수행하기	임원으로서의 리더십 발휘 멘토-멘티 역할 수행
	봉사학습을 통해 나누고 얻기	봉사 통해 나누기 유아의 반응 통해 기쁨과 성취감 느끼기

Ⅲ. 결과 및 해석

예비 보육교사의 전공 자율동아리인 음악동아리 활동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풍요로운 대학생활 누리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기’,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 되기’의 3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1. 풍요로운 대학생활 누리기

1) 든든한 인간관계 형성하기

정해진 시간표와 교사의 가이드에 따라 생활하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수강신청, 학점관리, 취업 준비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러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나 동기가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자율동아리인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배와 동기에게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경험뿐 아니라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다시 후배에게 나누어주는 경험을 하였다.

동아리는 ‘친구들과 만든 단체톡방’이다. 친한 친구들끼리 만든 단체톡방은 서로의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아리 또한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 친구들과 만든 단체톡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관련 면담자료, 이○준)

우쿨렐레를 배우는 것 이외에도 언니들이 잘 챙겨주는데... 진심을 다하여 실습, 취업에 대한 도움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저도 후배들이 들어오면 동아리 언니들에게 받은 도움을 그대로 주고 싶어요. 학과 수업, 공부 방향, 실습 준비, 실습 경험 등도 이야기해주고, 제가 취업하면 취업처 찾는 방법, 서류 준비하는 방법 등 모두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2020년 12월 22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자료, 이○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전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더욱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데 진심이 깃든다. 본 전공 동아리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동아리가 아닌 신입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동아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자율동아리의 특징으로 인하여 편안함을 느끼며, 선배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본인도 후배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리는 ‘튼튼한 동아줄’이다.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마지막에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 동아리는 나에게 튼튼한 동아줄 같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수업을 하자 대학생활이 너무 막막했는데 동아리를 통해 선배님들도 동기들도 만나게 되었고,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보육교사로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김○현)

2020년 1학기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유·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까지 입학이 3월 중순으로 미루어졌고,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신입생들은 막막함과 불안감을 가진 채 홀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만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에게 전공 자율동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유일한 희망인 동아줄 역할을 하였다. 동아리 선배의 도움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고, 동아리 선배와 동기들과 관계를 맺으며 막막했던 대학생활을 무사히 헤쳐나간 것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경험 : 도전과 추억 만들기

대학입시 위주의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많은 자유가 허용되는 대학생 시기는 어느 연령층보다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큰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 중 일부는 악기 연주에 능숙하여 즐기기 위해 동아리에 지원하였으나 일부는 능숙하지 않으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기 위하여 동아리에 지원하였다.

우쿨렐레 연주 동아리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쿨렐레를 배워 본 적이 없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아리 활동 초에는 ‘연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하는 걱정도 했지만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지금은 새로운 곡을 시작할 때 기대도 되고, ‘해보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9월 21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자료, 박○리)

새로운 도전은 기대와 설렘 같은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불안과 걱정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수반한다. 그러나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도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 같은 경험은 추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더불어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삶의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대학생활을 떠올렸을 때 재미있고, 특별한 나만의 추억이나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지원했는데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에요.

(2020년 4월 20일, 동아리 지원서류 관련 면담자료, 김○아)

동아리는 ‘조미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가 학교생활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요리에 조미료를 조금 첨가하면 더욱더 풍성한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듯이, 동아리도 학교생활이나 친목, 취업 등에 있어 더욱 풍성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어린이집 봉사 같은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동아리 덕분에 제 대학생활이 풍성해

졌다고 생각해요.

(2020년 11월 26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관련 면담자료, 이○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대학생이 되어 미래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싶어 하였다. 특히 예비 보육교사들은 혼자서는 도전하기 힘든 어린이집 봉사를 동아리 회원들과 경험하며 뜻깊고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나간 것을 알 수 있다.

3) 내 삶의 오아시스 발견하기

내외적 생활 변화에 대한 어려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담감, 사회진출을 앞두고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등으로 대학생들은 지쳐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친 삶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일방적으로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만나 활동을 해서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이 비슷하다’, ‘이타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편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휴식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조○름)

함주하며 선후배 간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져 저에게 동아리 활동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나 가족들과 공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같은 점이 있어서인지 짧은 시간 활동함에도 교감이 잘 이루어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2020년 11월 26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관련 면담, 1학년 박○현)

제게 동아리 활동은 ‘유튜브’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영상을 볼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동아리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중략동아리 활동을 하며 ‘재미있다’. ‘즐겁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우쿨렐레를 하며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관련 면담, 2학년 서○아)

공통의 취미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전공 자율동아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편안함을 느끼며, 전공과 관련된 어려움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악기 연주를 하며 예비 보육교사들은 음악 자체가 주는 치유의 효과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음악이라는 매개체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휴식과 치유의 감정을 느끼며, 즐거움과 만족함을 경험하며 대학생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2.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기

1) 유아교육현장 경험하기

예비 보육교사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다. 대학생활 동안 현장실습과 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동아리활동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에 방문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영유아들을 직접 만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고등학교 때 봉사로 어린이집에 간 경험은 있지만 주로 청소를 해서 어린 아이들과 마주할 기회는 없었어요. 이번 공연 때, 처음 어린이집 아이들을 마주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만 보다가 만 3세 아이들을 보니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수업 시간에 영상, 책을 보며 만 3세에 대한 이미지, 키, 반응 등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예상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2020년 12월 30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1학년 맹○빈)

처음 공연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고, 제가 진행하며 공연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반응이 좋았어요. 공연 후 평가를 하면서 처음 공연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영아가 많았고, 제가 진행하며 공연한 어린이집은 유아가 많아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중략... 저는 총 4번 어린이집 공연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더 많이 공연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2020년 9월 28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김○민)

고등학교 시절, 예비 보육교사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어린이집 환경정비 및 청소 등의 제한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영유아를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며 예비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직접 만나 학습한 이론과 실재를 비교하며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졸업하기 전에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 경험을 더욱 많이 갖기를 원하였다.

영아들은 박수 치며 지켜보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힘들어해서 짧고 신나는 곡으로 공연을 진행해야 해요. 유아들은 연주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어떤 유아는 울동을 해요. 그리고 첫 곡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연주할 때 적극적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 곡 순서를 정할 때, 밝고 경쾌한 곡이나 울동을 할 수 있는 곡으로 공연을 하면 좋아요.

(2020년 9월 23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심○나)

공연의 동요가 옛날 동요여서 요즘 유아들이 많이 부르는 동요로 하자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울동을 할 수 있는 신나는 동요 중에 요즘에 유아들이 많이 부르는 동요로 영아들은 ‘아기 상어’, 유아들은 ‘피노키오’ 나 ‘멋쟁이 토마토’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2020년 12월 30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박○연)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마친 후, 영유아들의 반응, 영유아 반응의 원인, 진행 및 상호작용의 수정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및 특성, 유아들이 선호하는 동요의 유형 등을 이해하고, 평가내용은 다음 공연계획에 반영하였다. 즉, 전공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예비 보육교사들은 취업 전, 다양한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을 경험하며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 후 이를 다시 다음 공연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해나갔다.

2) 보육교사로서 나만의 강점 만들기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기본 자질을 함양할 뿐 아니라 더욱 유능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중의 하나로 전공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취미와 소질을 발견하고, 이를 보육교사로서의 나만의 강점으로 이어나갔다.

보육실습 때 새노래 지도에서 우쿨렐레를 했는데 선생님도 아이들도 반응이 좋았어요. 우쿨렐레는 새로 워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 노래 지도가 더 수월했어요. 면접 볼 때도 우쿨렐레 이야기를 하니 원장님께서 가져와 아이들과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2020년 12월 30일, 개별면담, 2학년 최○랑)

음악을 좋아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에 지원했는데, 활동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워요. 더 연습하면 자격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12월 30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1학년 장○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아동음악’ 교과목을 수강하여 아동음악에 대한 이론 및 교수학습의 실제, 피아노 연주법을 배운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 피아노 연주 경험이 없는 예비 보육교사들은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주법을 익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동아리활동을 하며 우쿨렐레 연주법을 익히고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우쿨렐레를 활용하여 새노래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보육교사로서 자신만의 강점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연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을 체크하며 공연을 하는데 한번은 제가 “아빠가 나왔어요? 그랬구나!”하고 유아의 말을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다음 공연에서 다른 친구가 “연주를 들으며 아빠가 생각났구나. 그럼 다음 노래를 들으면 누가 생각 날까? 궁금하네. 우리 한번 다음 노래도 들어볼까요?”라고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공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2020년 12월 30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방○은)

영유아와의 직접경험의 기회가 적었던 예비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공연을 통해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모의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생생한 영유아의 반응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예비 보육교사들은 공연 전, 교사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 및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동일한 내용의 공연을 다른 동아리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비교하며 배워나갔다. 그리고 공연 후 평가시간을 통해 시선 처리, 발성법, 시간의 분배, 흥미유발 방법, 전이 방법,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해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해나갔다.

3) 보육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보육학과 학생들은 학과 특성상, 대체로 보육 관련 시설 종사자로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한다. 이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보다는 유능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보육 관련 시설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쿨렐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수가 동아리에 지원하였다.

입학할 때부터 학교 동아리보다 전공동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공동아리를 하면 취업이나 실습에 도움이 되는 배움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동아리에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린이집 봉사도 있고,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도 있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2020년 4월 21일, 동아리 지원서류 관련 면담, 1학년 이○진)

우쿨렐레라는 악기에 대해 궁금했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악기 연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지만 방법과 신청방법을 몰라 동아리에서 도움을 받고자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동아리 지원서류, 2학년 진○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아동보육학과의 특성상, 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보육교사 취업 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다수의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동아리에 가입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 나름대로 유능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동아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학과에 대한 애정, 보육교사에 대한 꿈과 관심이 0%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며 100%로 높아졌어요. 함께 연습하고, 어린이집 봉사를 준비하고, 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며

보육교사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꿈을 꾀요.

(2020년 12월 28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박○리)

동아리는 ‘모래시계’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래가 쌓이는 모래시계처럼, 동아리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2학년 안○현)

예비 보육교사는 전공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며 보육교사라는 꿈을 확고히 하고,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아리 지원 당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던 회원도 동아리 활동을 거듭할수록 학과에 대한 애정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으며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점검할 수 있었다.

3.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 되기

1) 동아리에서 나의 역할 성실하게 수행하기

동아리는 자율적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과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줄 수 있다(Busser, Hyams, & Carrutuers, 1995; 이옥주, 윤지영, 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 역시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서로 협력해나갔다.

선배님들이 졸업하고 후배들을 맞이할 때에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2년 동안 동아리 회장의 역할을 하며 되돌아보니 회원 모집부터 동아리 활동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생각과 함께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분위기가 좋아 지원했다는 후배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12월 23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김○민)

동아리는 ‘물’이다. 내 자신을 씨앗으로 표현한다면 물은 꽃을 피우기 전까지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햇빛과 같은 동아리 부원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의 능력치(상호작용, 리더십, 업무 수행능력)가 높아지게 된 것 같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2학년 방○은)

전공 동아리의 임원들은 신입회원 모집에서부터 악기 대여 및 관리, 멘토-멘티 연결, 악기 연주법 강의 및 연습, 봉사활동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봉사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등의 활동까지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아리 활동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아리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전공 동아리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동아리가 잘 운영되었고, 임원들 역시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장하였다.

혼자 악기 연주를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악기 연주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멘토-멘티가 되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 중략 ... 후배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동아리 활동 전에 ‘무슨 곡을 할까? 어떻게 가르쳐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과정에서 제가 교사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9월 23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2학년 안○현)

동아리는 ‘축구 경기’이다. 왜냐하면 축구팀에는 감독님, 공격, 수비 선수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경기를 진행하듯이 교수님과 선배님, 후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서로 힘을 합하여 연주를 하는 것이 꼭 축구경기를 하는 것처럼 재밌고 신나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2학년 최○랑)

본 전공 자율동아리는 선배와 후배가 멘토-멘티가 되어 우쿨렐레 연주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멘토인 동아리 회원은 멘티를 잘 가르치기 위해 멘티의 연주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곡을 선정하고, 교수방법을 고민하는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자율동아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동아리 임원과 일반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지도교수와 책임감을 가지고 동아리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동아리 임원과 일반회원이 한 팀이 되어 역할을 수행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전공 자율동아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예비 보육교사들의 경험은 팀티칭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영유아보육기관에서 파트너 선생님과의 협력, 대인관계 기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봉사학습을 통해 나누고 얻기

봉사학습은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이나 교과목과의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현장경험과 활동 제공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Mayhew & Welch, 2001; 손승현, 나경은, 문주영, 서유진,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 역시 전공 동아리활동 중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통해 봉사학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아리는 ‘민들레’이다. 노랗고 예쁜 민들레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후에 민들레 홀씨가 되어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개념적 메타포 설문, 1학년 손○아)

어린이집 공연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기뻐요. 뿌듯함도 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 중략 ... 공연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 부르는 모습, 박수 치며 박자 맞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연주를 마치고 느낌을 묻자 “선생님! 소리가 너무 예뻐요!” 했을 때는 정말 눈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몰려왔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2020년 12월 24일, 활동일지 관련 면담, 1학년 박○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학교 교과과정과 전공 동아리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봉사를 통해 영유아에게 나누고, 영유아의 열화와 같은 반응을 통해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환적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봉사자가 봉사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봉사자와 봉사대상자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되돌아보며 예비 보육교사로서의 교육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예비 보육교사들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식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통해 봉사학습을 경험하며, 책임감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 보육교사의 전공 자율동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31명의 예비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풍요로운 대학생활 누리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기’,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 되기’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예비 보육교사는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며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누리는 경험을 하였다. 예비 보육교사는 고등학교와 달라진 대학 시스템과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혼란과 당혹감과 같은 양가적 감정을 느꼈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는 이러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기들과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악기 연주뿐 아니라 취업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대학사회 내 사회적 조직망인 인간관계를 획득하고, 학과 공부 이외에 대인관계 형성, 진로 준비 등에 있어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된다는 윤영미(2013), 김화선 등(2019), 최경남과 신수경(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음악이라는 매개체 통해 즐거움, 휴식과 치유의 감정을 느끼며 더욱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영위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대학생활과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은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동아리 멤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달라진 대학생활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애썼고, 이러한 과정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포기하지 않은 데에는 그동안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만들어주는 동아리 활동의 소중한 추억과 그로 인해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해온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활 적응 및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 심리적 기반의 생성 등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예비 보육교사는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유아들을 직접 만나 영유아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은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봉사를 나가 영유아의 연령별 반응, 발달 특성, 흥미와 관심 등에 대해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는 유아교육 현장과 관련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활동인 자원봉사 활동이나 현장실습 등의 활동이 예비 보육교사들의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유아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문서연과 김진옥(2020), 손승현 등(2011), 최경남과 신수경(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공연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 흥미와 관심 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반영하였으며, 공연 봉사 후에는 계획 및 실행과정을 평가한 후 이를 다시 다음 공연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며 유능한 보육교사로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연, 자원봉사, 수업 진행을 경험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동아리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전공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이경옥 등(2012), 정미경과 강미희(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학생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전공은 장차 한 개인이 어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평생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이다(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 수업에 대한 흥미 저하, 대학생활 부적응, 추후 개인의 직업생활 만족도 저하뿐 아니라 직업환경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송윤정, 조규관, 2016; 양명희 등, 2010).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경우,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유아교사들 역시 유아교사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자신이 잘 해낼 수 있고 잘 해내고 싶은 분야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에 방희원과 조규관(2020), 서혜정, 원계선 그리고 임진형(2011)은 대학 차원에서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과 차원에서는 학과 동아리, 선후배 멘토링 등의 학과 내 활동 등을 통해 전공 또는 학과 소속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공 자율동아리 활동은 예비 보육교사들의 적성과 자질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학과에서도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의 식 고취를 위해 학과 내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보육교사는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을 하며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의 통아리는 전공 연계 자유통아리로서 통아리 회원들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활동의 계획과 운영이 통아리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통아리 임원들과 회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통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신입회원을 모집하였고, 선배와 후배가 멘토-멘티가 되어 우쿨렐레 연주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멘토인 통아리 회원은 멘티를 잘 가르치기 위해 멘티의 연주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곡을 선정하고, 교수방법을 고민하는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통아리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하였고,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능력 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송민선과 이인숙(2020)의 연구와 예비 유아교사들이 인형극 공연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선후배 간의 융합, 학년 내 연령차 극복, 친구의 특성과 차이점 인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미경과 강미희(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추후의 영유아 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역량은 미래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도 일치한다.

예비 보육교사들은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 중 어린이집 공연 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아에게 도움을 주고, 공연을 하며 영유아가 보이는 의미 있는 반응에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봉사활동은 봉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책임성, 자발성, 혹은 약속 이행이라는 가치가 포함된 행동으로 타인을 위한 나눔과 헌신을 경험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 이타적이 될 수 있다(안효진, 2010). 즉, 예비 유아교사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수자로서의 나와 지역사회로서의 우리가 동반 성장하는 참교육을 경험하였다. Eyster와 Giles(1999; 김향미, 라영안, 김혜정, 2018에서 재인용)은 전공 봉사학습은 개인적 성과, 학습 성과, 진로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들을 포함하여 더욱 의미 있다고 하였다. 예비 유아교사들은 전공 봉사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교사 역할을 경험해보며 스스로 자신이 교사에 적합한지, 혹은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고민할 뿐 아니라, 더 좋은 봉사학습을 하기 위해 고민한다(손승현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예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자와 대상자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하였다. 즉, 전공 자유통아리의 어린이집 봉사활동은 교사로서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헌하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예비 보육교사의 전공 자유통아리 참여 경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유일한 희망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왔으며, 유능한 보육교사로서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 자유통아리 활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활과 학과 적응 및 보육교사 양성의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공 자율동아리 회원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담자료를 주 분석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추후에는 동아리 지도교수 및 봉사활동 기관 담당교사, 동아리 회원이었던 졸업생과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고 깊은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근국, 김만수, 김범준 (2015). 대학 동아리 여가활동의 참여정도에 따른 재미와 몰입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2(2), 33-46. doi:10.21539/ksds.2015.32.2.33
- 김문주 (2011). 피부미용학과 학생들의 전공동아리활동 참여와 학과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3), 17-25.
- 김세루 (2021). 그림책연구 동아리 활동이 예비 유아교사의 감성지능 및 문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411-424. doi:10.24159/joec.2021.27.2.411
- 김승원 (2018). 예비유아교사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미, 라영안, 김혜정 (2018). 대학생의 해외전공봉사학습 경험에 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4(4), 401-421. doi:10.24159/joec.2018.24.4.401
- 김화선, 조경아, 노인숙 (2019).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영향요인. **인문사회** 21, 10(3), 1067-1078.
- 뉴스1 (2021.10.2) 비대면 시대 대학사에 ‘메타버스’바람...서울대에 동아리 등장. <https://www.news1.kr/articles/?4450161>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 문서연, 김진욱 (2020). 보육실습 관련 변인이 예비보육교사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19-139. doi:10.14698/jkcc.2020.16.02.119
- 문화일보 (2016.4.5.). ‘우울증 취준생’느는데...대학상담센터는 “기다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0501071421308001>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 매일경제 (2021.3.1.). 요즘 대학 새대기는...“미팅이요? 차라리 주식할래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197748/>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 매일경제 (2021.9.17.). 점수 맞춰 대학 진학, 너무나 대가는 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97883/>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 박신영 (2018). 애착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애착수준,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혁 (2013). 적응력 향상 단기 캠프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6, 30-58.
- 박주은, 양윤정, 장은주, 조은상 (2020).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자아정체감 향상 문학치료 프로그램 기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45(0), 149-190.
- 방희원, 조규판 (2020).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동기 및 진로성숙도

- 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285-304. doi:10.24159/joec.2020.26.4.285
- 백정민, 구남호 (2017). 대학 응원동아리의 활동과 의미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3), 69-87.
- 서혜정, 원계선, 임진형 (2011). 유아교육과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경험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67-92.
- 손승현, 나경은, 문주영, 서유진 (2011). 봉사학습을 통한 예비교사의 교육현장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교육방법연구**, 23(3), 529-553. doi:10.17927/tkjems.2011.23.3.529
- 손유진 (2003). 대학생의 동아리 및 여가 참여 유무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선, 이인숙 (2020).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8), 485-494. doi:10.5762/KAIS.2020.21.8.485
- 송윤정, 조규관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doi:10.22327/kei.2016.34.4.061
- 안효진 (2010). 예비 유아교사의 전공 관련 봉사학습의 의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71-485.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윤수인, 박윤 (2017). 예비 유아교사의 음악극 기획 및 공연 경험이 음악교수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 8(4), 31-53. doi:10.22143/HSS21.8.4
- 윤영미 (201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8(2), 21-30.
- 이경옥, 이상희, 엄소명, 정다희 (2012). 예비 유아교사의 R-러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 **어린이미디어연구**, 11(3), 175-197.
- 이경현, 김명아 (2018). 인지정서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4), 443-452. doi:10.5977/jkasne.2018.24.4.443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1 : 진로태도 구인 탐색.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1), 523-540.
- 이연정 (2021). 대학 '신입생 적응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인문사회** 21, 12(4), 417-428. doi:10.22143/HSS21.12.4.31
- 이옥주, 윤지영 (2017). 음악 동아리 경험이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음악교수내용지식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0, 45-63.
- 이지선(2010).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2002). **대학의 취업동아리 육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문미, 원영신 (2013). 대학 동아리 경험자의 전공전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1), 93-110.

- 정미경, 강미희 (2005). 예비 유아교사의 인형극 공연 경험이 유아에 대한 인식과 교수활동 및 자아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5(2), 119-143.
- 조경미, 이연승 (2014). R-러닝 대학동아리 활동 실태 및 예비 유아교사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349-378.
- 차남현, 김윤경 (2014). 간호대학생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659-666. doi:10.5977/jkasne.2014.20.4.659
- 최경남, 신수경 (2019). 유아교육학 전공연계 자원봉사활동이 취업준비생의 진로의식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4), 163-187. doi:10.34226/gcl.2019.9.4.163
- 최용혁 (2017). 예술계열 전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5(1), 159-173.
- 최재섭, 권상현, 황재욱 (2017). 신입생 학생선수의 대학생활과 팀 적응에 초점을 맞춘 팀 빌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체육과학연구*, 28(4), 1046-1062. doi:10.24985/kjss.2017.28.4.1046
- 최현욱, 이민석 (2019). 여가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여가만족,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8(1), 203-215. doi:10.23949/kjpe.2019.01.58.1.15
- 한선아, 강민정, 유희정 (2013).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가 예비 유아교사들의 R-러닝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2), 1058-1068. doi:10.5392/JKCA.2013.13.12.1058
- 황성호, 이동희 (2020). 대학스포츠 동아리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운동 지속 및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포츠융합학회지*, 18(2), 155-165. doi:10.22997/jcses.2020.18.2.155
- Elo, S., & Kynge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doi:10.1111/j.1365-2648.2007.04569.x
- Pritchard, M., & Wilson, G. (2005). Comparing sources of stress in college student athletes and non-athletes. *Athletic Insight: The Online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5(1), 1-8.

논문투고: 22.01.27

수정원고접수: 22.02.04

최종게재결정: 22.02.08